

예학 발전에 따른 남인과 서인의 복식문화

이 민 주[†]

고려대학교

1. 서론

예를 유교의 중핵으로 보며 유교사상을 건국, 치국의 이념으로 삼은 조선왕조는 예의 관념이 건국 초부터 실천과 인식의 양면에서 구체적으로 실효를 거두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그 예가 피상적으로 쓰였을 뿐이며¹⁾, 이항과 이어에 이르러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예설과 예론이 형성되었다. 이로써 이른 탐구의 학술풍조는 자연히 행동으로서만 존재해오던 종래의 禮行에 대해서 認識으로서의 예행을 위한 이론 탐구의 필요성을 자극하게 되었다.

특히 전란으로 인해 무너진 질서를 새로 재건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도로서 예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사회구조 자체가 변화해 가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사족들마저 명분과 예의염치보다는 利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전통적 유교 질서의 유지와 교화의 기능을 지닌 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었던 것이다.

예의 학술적 탐구는 정구의 『五先生禮設分類』, 김장생의 『家禮輯覽』, 『疑禮問解』와 신식의 『家禮彙解』 등 예서들이 간행²⁾되었고, 이러한 예서들은 예의 옳고 그름을 구별해 내기 위하여 의문이 나는 예설에 대해서는 예설적 근거를 서로 묻고 답하며 학자로서의 相長之益을 구하고 예학의 학문적 성숙을 추구해 갔다. 또한 이들은 단순히 예설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제 생활에서 철저하게 合禮의 생활을 하려던 의지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우호적이었던 분위기는 17세기 중·후반에 일어난 두 차례의 예송으로 서인계와 남인계로 나누어지면서 당시의 정치·사상적인 면뿐 아니라³⁾ 예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인 복식에 있어서도 양자간에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양자간의 차이는 복식을 통한 상징적인 표현⁴⁾을 가능하게 하여 집단 내 구성원들의 사상이나 학풍을 반영하면서 각 학파간의 동질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식연구는 엄격한 신분제도에 의한 궁중복식과 반가복식, 서민복식

[†]교신처자 E-mail mylec815@hanmail.net

1) 황원구, "이조 예학의 형성과정," 동방학지 6, (1963), p 239

2) 한기범, "조선중기 호서·영남 예가의 예설교류-의례문제 예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Vol 4 no 1, (1998)

3)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서울 한길사, 1996),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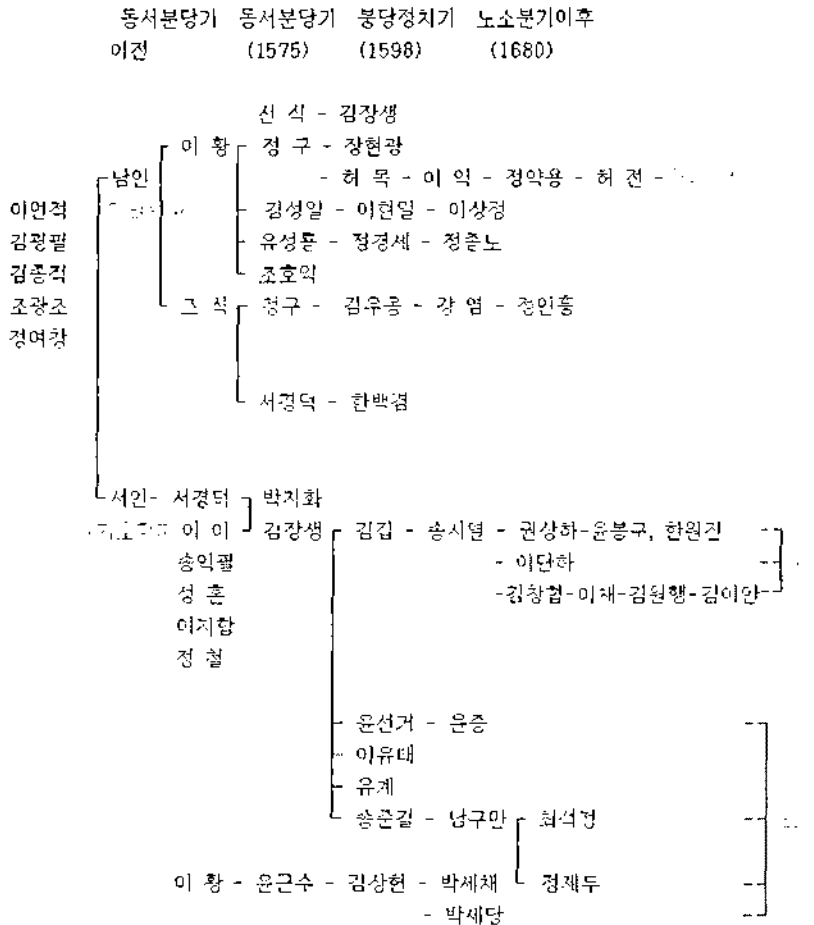
4)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공저,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1996), p 148

으로 크게 분류하여 연구되었다. 이는 조선왕조가 엄격한 신분제 사회로 지배계층인 양반과 중인, 상민, 천민으로 4분되어 관직·납세·군역·형외뿐 아니라 의식주 생활양식에도 차등을 두었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지역간의 특징을 고려한 복식연구는 전무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지역 간 특징이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복식문화가 예학의 발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인간상호관계를 중시하며, 혈통, 가통, 학통, 왕통 등 통 의식이 중시되었던 당시의 시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학맥을 중심으로 남인과 서인의 예설이론과 실천적 관상의 차이는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영남지역과 근기 지역으로 나뉘는 남인의 복식과 기호지역으로 나뉘는 서인의 복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학과에 따라 영남지역과 근기지역으로 나뉘는 남인과 기호지역으로 나뉘는 서인의 복식은 다시 봉당정치기 이후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5) 백영자,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1998), p 155.

따라서 남인과 서인의 복식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파간 계보와 예설의 차이점을 정리한 후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남인과 서인의 예학발전예 따른 복식문화의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학자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 지역을 지도에 표시한다 둘째, 각 학파 간 예설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 관심의 차이를 통하여 유학자의 최고 상복인 심의가 어떻게 변천되어 가는지 살펴본다. 셋째, 현전하는 초상화와 유물을 중심으로 심의 착용자의 활동을 추적하여, 과연 지역·학파 간 복식의 차이를 읽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넷째, 문헌에 나타난 남인과 서인의 복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결론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禮는 수신과 차국의 방법으로써 중요시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거의 전 시기를 통해서 중요시 되어왔으나 특히 16세기 이후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더불어 『주자가례』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 갔으며 16세기 중반이후 사림들의 예에 대한 관심은 사상적인 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생활 규범적인 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처럼 16세기 중반부터 예학은 그 자체 내의 독자적인 과정을 통해 발달해오다가 17세기에 성리학 이해의 심화와 양란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학은 이이 계통의 김장생의 예학과 서경덕 계통의 산식, 안공, 조호익 등의 예학, 서경덕 계통의 한백겸의 예학, 이황과 조식 계통의 정구의 예학 등이 서로 차이점을 나타내며 전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학의 발전에 따라 스승의 학설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묵수하여 의복이나 의식을 달리하고 점점 혼인도 하지 않았다는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먼저 학파간 계통을 살펴보고 남인과 서인간의 복식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학자들의 활동지를 중심으로 지도를 찍은 결과는 영남과 근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인과 기호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인으로 대별될 수 있다.

둘째, 예서를 통해 본 학동간 계열은 남인의 경우는 이황을 중심으로 김장생, 정구, 허목, 이익, 정약용, 허전으로 이어지는 학풍을 쫓고 있으며 서인은 이이를 중심으로 김장생, 김집, 송준길, 송시열, 남구만, 박세채, 박세당, 권상하, 이단하, 김창협, 이재, 김이안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이들의 복식 또한 초상화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론의 경우는 직령의 깃을 착용하는 것에 반해 소론의 경우는 방령의 깃을 착용함으로써 복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에 있어서도 紳에 따라 노론과 소론에 차이가 있다.

넷째, 이러한 色目간 차이는 조선후기 판소리에도 등장하고 있어 당시 학파에 따른 복식의 차이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영진 (1996).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서울: 한길사.
 이익, *皇湖僊說* (1981). 권저 5, 만물문. 서울: 경문사.
 조선왕조실록 (2003). 서울: 서울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정해경 (1998). *심의*. 경남: 경남대학교 출판부.
 한기범 (1998). "조선중기 호서·영남 예가의 예설교류-의례문해 예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사학보* Vol. 4 No. 1.
 황원구 (1963). "이조 예학의 형성과정," *동방학지* 6.